

“이성시대 가고 開悟시대 온다”

목정배교수 화갑논총 '미래불교의 향방' 발간

24일 출판기념회 개최

지난 40년간 불교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온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의 화갑기념 논총 <미래불교의 향방>이 나왔다. 목교수의 서언(序言) '미래불교의 향방'을 비롯해 그동안 화연(華嚴)을 맺어왔던 소장학자의 논문 등 53편이 실려 있으며 오는 24일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논총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이 논총은 △불교의 역사성과 보편성 △불교교리의 변천과 그 발전 △화엄·천태·정토 그리고 선 △한국불교사상의 이해 △계율과 윤리 △불교와 과학 그리고 예술 △세계로 미래로 등 7장으로 구성됐다. 불교사상·역사·교리·종파·선·계율·과학·예술·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다룬 이 논총은 소장학자들의 참신한 시각이 돋보인다.

목정배교수는 '미래불교의 향방'에서 이성(理性)의 시대에서 자연을 통찰하고 자성하는 개오(開悟)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미래불교를 광명의 불교라고 말할 목정배교수는 현대과학이 일으킨 재난이 인간의 생명, 즉 빛을 빼앗아갔다고 지적하고 생명(生命)이 말살된 미래는 암흑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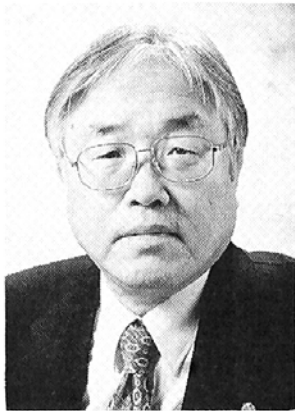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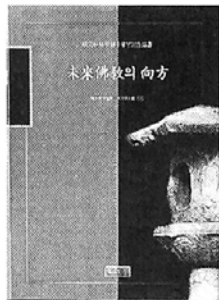
미래 불교는 연기론과 중생주의

(Sattvaism)가 인간의 정신적 바탕을 제공하며 자비행으로 생명의 꽃을 다시금 피울 수 있다는 것. 목정배교수는 이것이 수광불이(壽光不二) 사상 즉 코스모부디즘(Cosmobbuddhism)이며 미래불교의 향방을 가늠할 불교적 생명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만교수는 '불교의 유식(唯識)사상과 인식(認識)과학'에서 인식과학은 현대과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인식과학은 불교의 유식사상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교수에 따르면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유식사상을 염두에 놓기 때문. 유식사상을 연구하는 유식학은 현재 컴퓨터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인간의 사고, 인지, 기억 등과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내면적 요소들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

이교수는 "불교의 유식사상은 바로 인간의 내면을 관(觀)하는 것으로 인지과학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인간의 사고체계는 기술의 한계를 가져온다. 불교의 유식사상을 잘 활용하면 과학의 한계를 넘어 정신의 새 지평을 열고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승불교의 지력수행과 타력신앙에 관한 연구'에서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화엄경에서는 스스로 닦는 지력수행과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는 타력신앙 방편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풀이 아닌不二관계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해주스님에 따르면 석존의 근본정신이 육바라밀을 실천해 아늑



◇목정배교수

다라삼삼보리를 얻는다고 가르친 화엄경에 나타난 보살도는 '회상귀일'이라는 것. 따라서 중생은 부처님과 보살행원에 힘입어 괴로움이 소멸되고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게 된다. "대승에 와서 자기 구제만이 아니라 중생 구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지력수행의 확대가 타력신앙의 확산까지 수반하게 된다"고 한 해주스님은 지력이 곧 타력이고 타력이 곧 지력인 자타불이력의 보살도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유식사상 인공지능분야 접목 '눈길' 교학·선·과학·예술등 논문 53편 수록

“한국불교 교학체계 개혁 계기 삼자”

‘세계승가 수행체계’ 학술회의 분석·수용 ‘관건’



◇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학술회의가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5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세계 승단의 교학·수행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세미나는 세계각국 불교의 교학·수행체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교학과 수행에만 연구주제를 제한해 승단과 사회간의 비교가 부족했다며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교학체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원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은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승가교육체계가 당연히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종단에서도 제도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연구실장 현원스

님도 "한국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연구팀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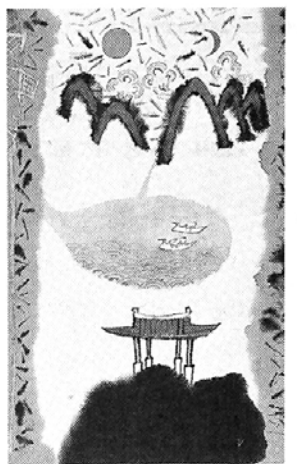
한편 가산불교문화원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7백쪽 분량의 논문을 발간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주제인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표지로 삼고 있는 이 논문집에는 스리랑카(일종) 태국·미얀마(정원) 중국(정영) 대만(덕주) 티베트(소남갈첸) 일본(지인·지관) 유럽(현문) 미국(진원) 한국(종호) 등지의 교학·수행체계에 대한 조사·연구논문 총 10편이 실려 있다.

法數로 배우는 불교

(9)

삼계(三界) ①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삼계(三界)라는 표현을 쓴다. 삼계는 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중생들의 세계를 차원에 따라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분류한 말이다. 여기서 계(界)란 인도어 다투(Dhatu)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는 계층, 기초, 요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능엄경에서는 방위,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먼저 욕계는 탐욕의 세계로 식욕, 음욕, 수면욕과 같은 욕망이 치성(馳成)한 곳이다. 이곳에는 고통이 한량없는 지옥세계에서부터 아귀세계, 축생세계, 인간세계, 수라세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스물여덟층의 천상세계 가운데 여섯 천상세계까지 포함되



◇이영수작 <삼계(삼아앞에서)>

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중생의 세계

탐욕 있는 곳 '욕계'...선악따라 육도로 나눠 선업 쌓고 선정 닦아야 '색계' '무색계' 도달

어 있다. 사왕천, 도리천, 아미천, 도솔천, 화락천, 티화지재천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의 색계는 물질의 세계로 욕계와 같이 탐욕은 없으나 미묘한 빛깔과 형체를 지니고 사는 곳이다. 이곳에는 앞서 말한 스물여덟층의 하늘세계 가운데 일곱 번째 하늘세계로부터 스물네번째 하늘세계가 속해져 있다. 범중천, 범보천, 대방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무문천, 북생천, 광과천, 무상천, 무변천, 무염천, 선견천, 선현천, 석구경천의 열여덟 천상세계가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무색계는 물질이 아닌 세계로 욕망과 형상도 없이 순전히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사는 곳이다. 역시 스물여덟층의 천상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나머지 네 종류의 천상세계가 이에 속해져 있다.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천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같은 삼계 가운데 욕계는 중생들의 선과 악을 행한 경중에 따라서 태어난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

아귀 축생같은 고통세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을 많이하고 복을 지으면 인간, 수라, 여섯가지 천상계의 복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계를 받아 나쁜 일을 범하지 않고 깨끗한 행만 지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욕계의 여섯 천상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는 이와는 좀 다르다.

이곳은 착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태어나지 못한다. 착한 일도 착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을 닦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열마만큼의 집중된 정신력을 쌓았느냐에 따라 좀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방법이 아니더라도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요가나 신선도와 같은 정신집중을 통해서도 삼계의 최고하늘인 비상비비상천에 태어나게 된다. 소승불교의 성자인 아라한을 제외한, 수다란, 사다함, 아나함이 도달하는 곳도 여기라고 한다.

이제 열 <유미선원장>

불교용어 정리...부처님 일대기 삽화도 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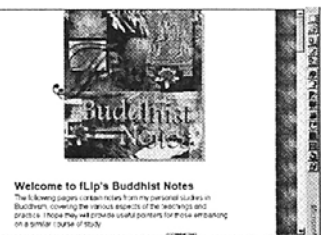
부디피이 사이버 기행 불교노트

영국의 한 청년 F.리프(23)가 인터넷 상에 '불교노트'(Buddhist Notes)를 개설하고 자신이 불교를 공부하며 배운 것을 정리·공개하고 있다. '불교노트'(Buddhist Note)는 지난

해 12월 개설되어 브리태니커, 웹스터, 롱맨 등의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불교 어휘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놓고 있다. 리프는 이 사이트를 '불교노트'라고 한 것 처럼 런던불교학회에서 정의한 '불교의 12계율'을 비롯해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며 불교 입문자들이 꼭 배워야할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이종에는 존 스네링(英)이 기록한 <불교편람>(런던판)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각(大覺)과 脫교리·포용력·불교의 자유탐구·수행법·수계 등을 요약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 일생·중도·사성제·광정도·지혜·도덕(dharma)·명상(samadhi) 등의 해설도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여행기간동안 미얀마에서 수집한 텡린족(Tung Lin Kok)의 70여쪽에 이르는 부처님 일대기 삽



화도 진귀한 불거리. 사이트 주소는 'http://www.geocities.com/Tokyo/Towers/3268/bnotes01.html' 이다.

경주시 문화재조사단 운영

매장문화재 전문발굴기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경주시에 설립된다.

경주시는 고숙철도건설 및 역사권 개발, 경마장 건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해 급증하는 문화재발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장급 단장과 10명의 발굴인원으로 구성된 자체 발굴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사단은 공개입찰과정을 거쳐 경주시내의 매장문화재 발굴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전통과학기술센터 설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진통과학기술센터(센터장 최주박사)를 설립해 국내에서도 각종 문화재들의 성분분석과 복원이 가능해졌다. 전통과학기술센터는 첨단기기를 이용 문화재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불화나 서화의 분석은 물론 종이 표면에 남아있는 성분을 추적해 각종 경전들의 글자도 복원한다. E.P.M.A라는 기계는 철과 동 등 주성분의 성분과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이나 범종 등 금속공예도 쉽게 복원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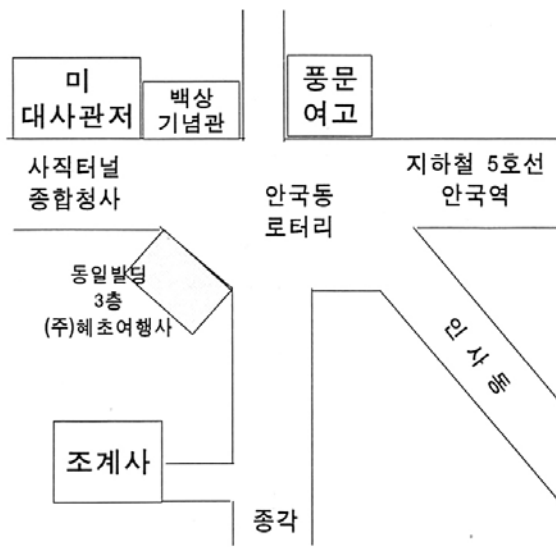
혜 초 여 행사 확장 이 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주)혜초여행사가 조제사 옆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더욱 더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습망



* 찾아 오시는 길

Royal Nepal Airlines 네팔 항공

한국 총판매 대리점 계약

* 항공권 예약, 발권 업무 개시 *

- 기념특전 1. 카트만두 1박 숙박권 제공
- 2. 인도 네팔 비자 무료 대행
- 3. 인도, 네팔, 티베트 여행자료 제공

성지 순례의 출발지 - 네팔
히말라야의 관문 - 카트만두

네팔, 인도, 티베트 여행은 이제부터 네팔 항공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불교 성지순례, 항공권 해외 여행, 신혼여행

혜 초 여 행사

문의전화 733-3900(代)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3층